



1 비가 내린 곳은 날씨속에서 진행된 에코투어에서 의귀천길을 걷는 탐방객들 2 우리우산버섯 3 마하니 수직굴 4 말안장버섯 5 달걀버섯 6 으름난초 7 나무 위로 기어가는 달팽이.

강희만기자

빗물 머금은 자연의 선물... 초록빛 숲의 진가 맛보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⑥ 남조로~물영아리 앞 마하니숲길~의귀천길~수직동굴~마하니옴~숲길~마하니옴옴~사려니길~남조로

빗속 탐방... 여름 숲길 정취 물씬 수직굴 암벽에 자란 나무도 볼만 삼나무숲길 피톤치드 향기에 흠뻑



지난 13일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이날 예정된 에코투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 됐다. 그러나 이날 내린 비로 수분을 잔뜩 머금은 제주 자연의 풀내음 등의 향기는 에코투어 내내 코끝에 잔잔하게 머물면서 진정한 제주 숲길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이날 진행된 '2019 제6차 에코투어'는 남조로에서 물영아리 앞 마하니숲길~의귀천길~수직동굴~마하니옴~숲길~마하니옴옴~사려니길~남조로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에코투어 집결지인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오전 8시 40분쯤 참가자들을 가득 실은 버스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물영아리 휴게소 인근에 멈춰 섰다. 버스에서 내린 참가자들은 비옷을 갖춰 입고 빗속 탐방에 나서기 시작했다.

탐방에 나서기 전 참가자들을 불러모은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은 "곳은 날씨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숲길에서의 비상 행동요령 등을 설명한 뒤 이날 에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수풀이 우거진 숲길을 헤치며 에코투어를 이어갔고 어느덧 마하니 캐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마하니 캐에 대한 설명이 쓰여진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 따르면 마하니 캐는 반원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폭 10m, 높이 7~8m, 깊이 4m에 달하는 바위굴이다. 특히 지표면을 따라 흐르던 물이 캐의 상부로 모여 낙수(落水)를 만든다. 때문에 과거 마을주민들은 노루 사냥과 나무를 벌채하기 위해 숲으로 나와 물을 구할 수 있는 마하니 캐에서 며칠 동안 숙식을 해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마하니 캐에 직접 들어가 곳곳을 둘러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10여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참가자들은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옴을 오르기도 잠시 어느덧 마하니 수직굴에 도착했다. 마하니 수직굴은 일반적인 웅암동굴이 수평으로 발달하는 것과 달리 수직으로 발달돼 있다. 동굴의 깊이는 대략 2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굴에서 암벽 사이에서 자란 나무는 자연의 신비를 느끼기

에 충분했다. 참가자들은 수직 동굴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등 소중한 추억을 쌓기도 했다.

이어 마하니옴 정상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비에 젖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빗방울이 비옷을 타고 발과 반찬에 푹푹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기억에 오래 남을 추억이라며 즐기듯 밥을 먹기도 했다.

점심을 해결하고 참가자들은 '마하니옴옴'으로 향했다. 마하니옴옴은 마하니 옴 옆에 있어 마하니옴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마하니옴옴에 가기 위해서는 삼나무 숲길을 지나야 하는데, 당시 비가 온 터라 삼나무 숲의 상쾌한 피톤치드의 향기는 더욱 진하게 풍겼다.

숲길에서는 만개한 달걀버섯 등 다양한 식물이 관찰됐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으름난초와 나무에 빼곡하게 핀 버섯 무더기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

참가자들은 마하니옴옴을 지나 사려니숲길을 거쳐 남조로로 빠져나와 이날 진행된

에코투어를 무사히 마쳤다.

이날 에코투어를 마치고 집결지로 다시 되돌아가는 버스에서 참가자들은 비에 젖은 도시락과 진흙발을 헤치며 옴을 올랐던 기억 등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수망리 일원에 실시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숲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한 참가자는 "비가 내리면서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숲의 진가를 느끼게 된 기분"이라며 "다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제주 숲 일부가 훼손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개장된 마하니옴 숲길 탐방로의 총 길이는 5.3km로 왕복 약 3시간 정도로 소요된다. 동절기에는 오후 3시 하절기에는 오후 4시 이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 '제7차 에코투어'는 안덕쓰레기매립장~영아리옴~습지~임도~숲길~돌옴~임도~색달천~임도~서귀포쓰레기매립장까지 진행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상기 표고는 출발일에 따라 표고가 달라집니다.

백두산 4일(5성급)

7월~10월 매주 수요일출발

9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 준5성호텔, 특식 2회, 전신마사지 1회

※상기 표고는 출발일에 따라 표고가 달라집니다.

노소핑/산위속박

상해/황산 4일

7월~10월 매주 목,금요일출발

895,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8,957적립

고속열차 왕복, 5성급, 산위 1박, 특식 2회

※상기 표고는 출발일에 따라 표고가 달라집니다.

REAL 마카오 4명출발

마카오 완전일주 4일

7월~9월 매주 수,금요일출발

797,6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976적립

노소핑, 마카오 1박 특급호텔 업그레이드, 세계문화유산 투어, 덤보레스토랑, 에어프리트 제공

※상기 표고는 출발일에 따라 표고가 달라집니다.

온천여행

후쿠오카/유후인/벳부 4일

7월~8월 매주 토요일출발

6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80적립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 후쿠오카 트윈룸 2박 +벳부 온천호텔 1박, 온천욕

※상기 표고는 출발일에 따라 표고가 달라집니다.

대한항공

북경+태항산/대협곡/팔천협 4일

7월~10월 매주 수,목,금,토

697,8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78적립

고속열차 왕복, 5성급, 태항대협곡(도화곡/환산선/왕상암) +팔천협, 특식 3회

※상기 표고는 출발일에 따라 표고가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방콕(초특급)/파타야(초특급) 5일

7월19일~8월31일 매일출발

6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90적립

<소핑3회> 제한+전통안마2시간+날카자쇼+런치크루즈+왕궁

※상기 표고는 출발일에 따라 표고가 달라집니다.

8명특가 실속 호텔업

대만 타이베이/화롄/야루/지우펀/스펀 4일

7/12,30 8/17,21,27 9/10,18

6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90적립

<특급호텔 무료 업그레이드> 고급박물관/아시장/해양공원+물놀이880/사브사브

※상기 표고는 출발일에 따라 표고가 달라집니다.

동경/가마쿠라/요코하마 4일(트윈)

7월~10월 매주 수,토,일요일

692,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20적립

<10명 선착순 파격특가+동경 및 근교 핵심 전일투어+동경 시내 또는 디즈니랜드 선택일정 가능> 전일정 트윈

모두투어 전문판매대리점(가자항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 전일정호설(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부분별),현지선택관광